

휴가철 기름값 ‘고공행진’... 여행경비 부담 가중

휘발유·경유가격 4주 연속 상승세 국제유가상승·인하율축소 등 원인 제주 등 인기 여행지 유가 더 비싸 여행객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기름값이 들쭉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기름값은 최근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여행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3주차(7월 14일~20일) 기준 보통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은 1713.06원으로 전주 1706.56원과 비교해 6.5원 올랐다. 반등이 시작되기 전 최저치를 찍은 6월 3주차 1648.72원보다는 64.34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

유는 1548.64원으로, 전주 1540.55원보다 8.09원, 6월 3주차 1478.03원보다 70.61원 상승했다.

광주지역 주유소의 7월 3주차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96.12원으로 전주인 1689.36원보다 6.76원 올랐다. △6월 3주차 1640.96원 △6월 4주차 1646.10원 △7월 1주차 1666.27원 △7월 2주차 1689.36원 △7월 3주차 1696.12원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월 3주차 기준 경유는 1526.75원으로, 6월 3주차 평균판매가격인 1465.40원보다 61.35원 상승했다.

전남지역 보통휘발유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도 6월 3주차 1666.99원에서 7월 3주차 1712.97원으로 4주 만에 45.98원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6월 3주차 1500.52원에서 7월 3주차 1547.84원으로 47.32원 상승했다.

휴가철 자주 찾는 여행지의 유가도 전국 평균 판매가격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인기 여행지인 제주의 7월 3주차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66.34원으로 전국에서 서울(1779.95원) 다음으로 높다. 이는 6월 3주차인 1667.52원과 비교해 무려 112.43원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622.24원으로 6월 3주차 1513.98원에 비해 108.26원 상승했다.

대표적 피서지인 강원지역의 7월 3주차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 역시 1717.66원으로 전주(1708.38원)와 비교해 9.28원 올랐다. 6월 3주차인 1664.48원보다 53.18원 상승했다. 경유는 1558.12원으로, 6월 3주차 1501.75원과 비교해 56.37원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피넷은 7월 3주차 국제유가의 상승 원인을 ‘중국 경기 둔화 및 미국 달러화 강세’로 꼽았다.

이처럼 기름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자 휴가를 앞두고 전국 곳곳으로 이동이 예정돼 있는 지역민들이 유류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정모(30)씨는 “휴가철을 맞아 연인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숙박비, 외식비, 유류비 어느 것 하나 부담되지 않는 것이 없다”며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가득채워 이동해도 3~4일 여행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주유를 해야 한다. 급하게 주유소를 찾다보면 평균보다 훨씬 비싼 곳에서 주유를 하게 될 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지와 주유소에 따라 기름값이 다르니 휘발유값이 1700원 중반대를

넘어가면 기름을 넣기가 꺼려진다. 비교적 저렴한 곳만 찾아서 주유해도 이동 경비만 최소 15만~20만원이 나온다”며 “4명 이상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면 이동 경비 부담이 조금 덜하지만, 두명이 비용을 나눠 낼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토로했다.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김도영(22)씨는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렌트를 하기에는 대여 비용과 기름값 부담이 커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여행지에서는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성수기다 보니 숙박비만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친구들과 길게 여행을 갈 기회가 방학밖에 없어 8월 초로 휴가 일정을 잡게 됐다. 하루 이틀 정도는 이동하지 않고 숙소에서 호캉스를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꿀잠페어’ 진행 광주신세계가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편안한 침구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이는 ‘꿀잠페어’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 연결 통로 이벤트홀에서 꿀잠페어를 열고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꿀잠페어에서는 여름밤 무더위를 잡을 수 있는 냉감 베개솜부터 패드, 이불까지 다양한 침구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홈플러스, 휴가 시즌 ‘썸머 슈퍼세일 홈플러스’ 연다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 먹거리·물놀이용품 최대 70% ↓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역대급 할인 혜택을 선사하는 ‘썸머 슈퍼세일! 썸머 홈플러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삼겹살, 복숭아, 닭다리 등 여름 신선 먹거리부터 물놀이용품 등 바캉스 필수품, 여름 이불 등 생활용품까지 총망라해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마트, 온라인, 익스프레스, 몰 전 채널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그룹 통합 세일을 진행해 여름 휴가 물가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규 고객 25만명이 늘고 연일 완판 행진을 기록했던 창립 27주년 ‘홈플러스’의 여름 버전인 만큼 이번 행사 역시 오픈런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3월 1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한 창립 27주

년 ‘홈플러스’ 행사는 식품군 전체 매출은 전년비 20%, 온라인 즉시 배송 매출은 전년비 75% 신장하는 등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행사 첫 주말인 25~28일에는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100g)’을 1600원대라는 파격가에 만날 수 있고, 한 주간 ‘햇사레&하늘작 복숭아’는 7900원대, ‘당당 옛날통닭’은 4900원대에 내놓는다. 또 ‘대란(30입)’은 1판 5900원대, 2판 9900원대, ‘진라면 소컵(6입)’은 2400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고객 수요가 높은 신선식품은 반값으로 준비했다. 7대 카드 결제 시 26~28일 단 3일간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반값에 선보이고, 냉동 스페인산 냉삼겹(1kg), 단단 파프리카(개), 새벽수확 양상추(봉), 완숙 토마토(2kg)도 반값 혜택을 제공한다. 7대카드는 신한/삼성/국민/롯데/농협/광주/전북카드(BC/법인/선불/기프트카드 제외)다.

장바구니 필수 먹거리와 여름철 대표

가공식품류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유기농 두부/콩나물 전품목 △고추장, 된장, 찜장, 카레, 짜장 등 인기 소스류 △파스타면/소스 △유부초밥 △김치 △햄/소시지 △냉면 △하겐다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1+1 혜택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피서지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물놀이용품과 캠핑용품은 최대 50%, 여름 패션 상품과 이불 등 생활용품은 최대 70% 할인가로 만날 수 있다. 상품별 행사 기간은 상이하다.

휴가 시즌에 빠질 수 없는 주류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7대 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와인 전 품목은 2만원, 위스키 전품목은 1만원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계맥주 5캔 9900원 △병맥주 9종 3병 9900원 등 다양한 주류를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점포별 품목은 상이하므로 마이홈플러스 앱 ‘주주클럽’에서 취급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금호타이어 ‘희망의 공부방’ 33호점 완공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금호타이어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의 공부방 33호점을 완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33호점 완공식에서는 강진군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 및 김선희 나눔사업2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전달 등이 진행됐다.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활동은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학습 교구와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33호점의 지원 대상 아동은 장애희망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15살 학생이다. 금호타이어는 주인공이 원하는 공부방에 대한 세밀한 욕구 파악을 비롯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침대, 책상, 도배장판 등 학습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했다.



강진군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희망의 공부방 조성 이후 학생들의 후기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희망의 공부방 조성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청소년학교 폭력예방교육, 유자녀 미래역량강화 멘토링 지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부사업과 후원 사업을 실시하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아파트 20만세대 돌파

조명·냉난방기·환기장치 등 제어

삼성전자의 AI 기업간거래(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가 20만 세대를 돌파했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스마트싱스 프로를 아파트 단지에 특화한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은 지난 2020년 11월 삼성물산 래미안 리더스원을 시작으로 총 248개 단지, 20만 세대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건설사,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많은 건설사와 협력 구

축으로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을 적용해 차별화된 AI B2B 스마트홈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은 △집 안의 가전제품, 조명, 냉·난방기, 환기 장치, 전동 블라인드·커튼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정보, 무인 택배 관리, 방문 차량 등록 등 편의 정보까지 어플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선사한다.

또 실시간 전기요금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기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알 수 있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도 가능하다. ‘AI 절약 모드’로 동작할 기기를 미리 설정해 두면 선택 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하며, 전력 사용량 절감 알림(DR 발령) 시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혜택을 받는 ‘에너지 절약 미션’ 등 게임 요소를 접목한 각종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리 집 도면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3D 맵 뷰’를 사용하면 공간별로 스마트싱스와 연결된 가전 상태와 조명·온도·공기질·에너지 사용량까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영암-순천고속도로 장흥정남진수소충전소 개장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영암순천고속도로 장흥정남진 휴게소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오는 26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장흥정남진 수

소충전소는 광주전남본부 관내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중 백양사(천안방향), 함평천지(목포방향), 오수(완주방향) 수소충전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장하는 곳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충전요금은 kg당 9900원이

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